

동구, 인권 존중 도시로 거듭난다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인권 존중 캠페인’ 실시

충장축제 인권마당극 호응…다양성 존중 지속 실천

광주 동구가 다채로운 주민 참여 프로그램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권 존중 동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충장축제 기간 인권마당극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

동구는 11일 “지난 8일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 존중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10일)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해 생활 속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전달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직장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다짐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계인권선언문’ 전시를 비롯해 ▲일

상생활 속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 실천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인권 도서’ ▲올바른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해 주최한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등을 선보여 인권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인권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선보이고 있는 동구 인권마당극 또한 인권 존중 도시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앞서 동구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선보인 관객참여형 ‘인권마당극’을 권역별로 4회에 걸쳐 개최, 이웃과 관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인권 침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매회 공연마다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바 있다.

지난 10월 ‘제19회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컵페스티벌’ 기간 동안 축제 행사장과 산동 베테니아 잔디밭에서 선보인 인권마당극은 시민들 외에도 축제 기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뒀고, 이어 지난달 17일 월남동 월남어린이공원, 지난달 26일 산수문화마당에서 인권마당극을 차례로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인권마당극은 ▲마트 계산원에 대한 반말, 여지 ▲택배 노동자에 대한 갑질 ▲아파트 경비원 무시, 무리한 요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CCTV 감시, 휴식권 미보장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동구는 지난 8일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 존중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동구 제공>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로 구성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무대들로 구성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국적, 인종 등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다”면서

“앞으로도 인권교육, 홍보 캠페인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동구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복기



안전하고 존중받는 ‘아동정책제안 대회’ 개최

광주 북구는 지난 7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함께하는 북구’란 주제로 아동 정책제안 활성화와 참여 증진을 위한 제2회 아동정책제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인 북구청장과 굿네이버스, 청소년문화의 집 등 관계자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모집

광주 북구는 11일 “오는 22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북구만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품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로 최대 2개 품목까지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북구청 세무1과로 관

련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는 지역자원 활용도, 공급 및 마케팅 능력, 상품의 우수성 등 주요 항목을 평가해 이달 내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는 다양한 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한 답례품 선정으로 기부자가 만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로 북구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과 우수 공급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서구, ‘지역복지사업’ 장관상 수상

광주 서구는 11일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내역,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동,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의료급여사업 성과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대상’,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분야 ‘우수상’, 의료급여사업 분야 ‘우수상’ 등 총 4개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안재영 기자

광산구, 광주 첫 ‘미래교육지구’ 선정

민·관·학 협력 체계 구축…다양한 교육 사업 추진

광주 광산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교육부 ‘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 ‘모두를 위한 교육, 어디나 배움터’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추진에 나선다.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광산구를 비롯해 총 33개 지구가 선정됐다. 선정 지자체에는 각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난 5월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미래

교육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지역교육협의체 구성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 준비 TF팀 운영 등 필요한 준비를 마친 광산구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구상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학교와 마을, 칸막이 없는 부서 간 협력 등 상생을 통한 교육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광산구는 ‘모두를 위한 교육, 광산은 어디나 배움터’라는 비전을 세우고, 교육협력 기반 구축과 학교자율 책임 운영, 교육자치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서부교육

지원청과 상시 소통하는 ‘광산구지역교육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마을별 교육자치모임, 광산교육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민·관·학을 아우르는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들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을 잇는 상생형 교육 활성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역량 강화, 청소년 자기주도성 신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마을과 학교, 지역을 엮어 진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주민 누구나 배우고 학습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상생 혁신의 교육 생태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근 기자

‘종이팩스 그만’…남구, 전자팩스 시스템 도입

비용절감·민원 처리속도 향상

광주 남구는 종이로 주고받던 팩스 문서를 전자식으로 전환하는 전자팩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전자팩스 시스템은 문서누락 등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팩스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팩스기를 통해 문서를 수·발신하는 과정에서 수신자가 사용 중인 팩스기 내에 종이 부재 및 동시에 여러 팩스를 수신할 경우 문서를 주고받지 못해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고, 종이 팩스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전자팩스는 팩스기에 문서 정보를 남기지 않을뿐더러 시스템 상에서만 컴퓨터 파일로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으며, 문서 분실의 염려도 덜 수 있다.

또 팩스를 주고받은 내용 및 수·발신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문서 보안 및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더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달 홍보담당관 부서에 전자팩스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한 뒤 최근 구청 내 각 실과 부서 및 관내 17개 행정복지센터, 남구의회에 확대 보급을 마무리했다.

전자팩스 도입으로 종이팩스에 소요되는 종이 및 토너 등 소모성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하나의 공문을 여러 기관에 단체 발송할 경우 10여분 가량 소요되는 팩스 발송 시간을 2-3분 내로 단축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원인들도 모바일 팩스 앱을 통해 팩스 수·발신을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수신 여부 등 처리 사항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문서수발 형태를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문서보안관리 강화와 불필요한 소모품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복기

토지매매 (담양)

▶ 담양 프로방스 앞

- 임야 : 7,500평
- 용도 : 개발부지, 관광농원, 임산물식재
-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

- 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계획관리)
- 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종주거지역)
- 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
- ④ 장성읍 아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
- ⑤ 장성읍 아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부)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서구 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이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원동(윤슬아침) ▶ 감정이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이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이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이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이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삼호읍 (숙박시설) ▶ 감정이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이 17억 → 최저가 12억

010-2614-9801